

놓치지 이까운 이달의 책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시민불복종》 이남석 지음 | 그린비 | 304쪽 | 값 12,000원



《현대 의학, 그 위대한 도전의 역사》 예병일 지음 | 사이언스북스 | 336쪽 | 값 15,000원



내 병역 거부의 이유를 세상에 알려라

이 책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법적, 종교적, 양심적 측면에서 바라본 기존의 분석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시민불복종 운동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한 책이다. 이를 위해 저자는 먼저 병역면제와 병역기피 등과 비교해 병역거부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 사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이해와 관용을 가로막고 있는 요인들을 살펴본 후 이를 바탕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시민불복종 운동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분석한다.

국내에서 병역거부가 공론화된 것은 2001년 오태양의 병역거부 선언부터다. 이후 반전주의적·평화주의적 관점에서의 병역거부 선언이 이어졌고 2004년 5월에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판결이 나오기에 이른다. 대법원에서 유죄라는 판결이 확정되고 헌법소원에서 헌병법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러한 논란을 계기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이해와 대체복무제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이어졌다.

하지만 저자가 주목하고 있듯이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민들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해 귀를 닫거나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저자는 이를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관용의 원리 때문이라고 꼬집는다.

저자는 올바른 전쟁에 대한 믿음, 정상인과 비정상인의 구별, 다수결에 의한 모든 가치를 획일화 등 불관용의 원리를 분석한 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한편으로는 개인의 양심을 타고난 권리로 인정하라는 집단적인 시위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의 다수 시민의 통일성과 획일성에 대한 싸움이자 우리 사회의 무의식적인 내면에 잠재한 군사주의와의 투쟁” 이었다고 분석한다.

신동섭기자

현대 의학 발전의 이정표를 따라서

천연두, 콜레라, 디프테리아... 19세기만 해도 무수한 사람들이 이러한 질병으로 목숨을 잃어야 했다. 하지만 20세기 의학은 면역학의 발달에 따른 각종 예방백신과 항생제의 개발, 각종 암에 대한 다양한 도전, X선 발견 등 진단기술의 발전, 피임약 개발 등의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면서 인류의 삶을 바꾸어놓았다.

1909년 란트슈타이너(혈액형 발견으로 1930년 노벨 생리·화학상 수상)는 소아마비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처음 분리해 내는데 성공했다. 1930년 전자현미경의 개발과 같은 기술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바이러스의 구조를 낱알이 살피고 세포와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일이 가능해졌다. 결국 1954년 미국의 유행성감기 전문가 요나스 소크와 그의 동료들이 소아마비백신 개발에 성공해 전 세계 어린이이 소아마비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현대 의학, 그 위대한 도전의 역사》는 1901년부터 지금까지 104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중심으로 20세기 현대의학의 희망과 한계를 보여주는 책이다. '현대 의학 발전의 역사적 이정표'라고 할 수 있는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를 중심으로 의학사의 구체적 사실을 소개하고 그 의학사적 사건이 문명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한다. 또한 정치적인 이유로 혹은 운이 나빠 노벨상 수상 기회를 놓친 사람들과 행운의 여신의 도움으로 노벨상을 타게 된 사람들 등 역사 속에 감춰진 흥미진진한 이야기와 의학적 발견과 인간 존재에 대한 근본적 고민 사이에서 갈등하는 과학자들의 인간적인 모습이 그려져 있다. 한탄바이러스를 발견해 노벨상 후보에 오른 이호왕 박사 등 우리나라 근·현대 연구자들도 만날 수 있다.

신동섭기자



철학자 당신들은 왜 그렇게 엉뚱한 생각만 하지?

《철학에는 유머가 없는가》의 주인공은 기괴한 가공의 생명체 '무름이'다. 철학의 기본자세인 '묻고 또 묻는 호기심'을 뜻하는 이름. 우리의 무름이는 철학의 아버지 소크라테스부터 근대 철학자 흄에게까지 들러붙어 지긋지긋할 정도로 물음을 던지며 그들이 갖고 있는 유머를 속속 밝혀낸다.

대중없이 철학사를 넘나드는 것 같지만 무름이에게는 자신만의 원칙이 있다. 서양철학 시기별 세계관의 특징 속에서 가장 중요한 철학자에게 들러붙는다는 것이 제1원칙이요, 시기별 세계관에서 드러나는 난제를 통해 그 세계관이 어떠한 식으로 다음 세계관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제2원칙이다. 철학과 과학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암시, 철학 또한 하나의 학문 분야에 지나지 않음을 밝히는 것은 제3원칙이며,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의 다양함을 보여주겠다는 것이 제4원칙이다.

그리하여 무름이는 시기별 세계관을 가장 잘 알 만한 철학자들 앞에서 “신이 우주를 설계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던데요?” “인간본성이 이기적이라구요?” “인간을 원숭이의 후손이라 생각하나요?” “거봐요, 세상 대혼돈에 철학자 당신들 역시 무기력하잖아요?”라고 묻고 따진다.

제3원칙과 제4원칙에서 엿보이듯 무름이는 철학은 모든 학문의 여왕이 아님을 전하고 싶어 한다. 왜? 여왕하고는 감히 놀아볼 수 없으니까. 이토록 많은 유머를 갖고 있으면서 근엄한 척 한 것이 못마땅했으니까. 무름이와 함께 서양철학사를 횡단하다보면 슬그머니 그 곁에 붙어 “철학자 당신들은 왜 그렇게 엉뚱한 생각만 하느냐”고 한 마디 거들고 싶어진다. 물론 무름이를 만든 창조주 이상하 씨의 지적세계에 경의를 표하면서 말이다.

박용두 기자

시대의 욕망과 진실, 광고 안에 있소이다

광고는 젊다. 그리고 유용하다. 생선처럼 팔딱거리는 현재, 여기 있는 대중들의 욕망을 신선하게 읽어내니 젊다. 또한 당대의 경제구조, 소비, 유행의 스펙트럼을 담고 있으니 유용한 자료다.

《광고로 읽는 한국 사회문화사》는 19세기 말부터 오늘날까지 우리 사회에서 큰 반응을 얻었던 주요 광고들을 놓고 한국의 사회 문화현상을 진단한다.

한국 사회에서 광고가 처음 쓰인 때는 1800년대 말. 근대적인 광고가 한국에서 처음 등장한 이 시절 한국인들은 ‘광고’를 ‘아림’이라 소개했다. ‘advertising’의 적합한 우리말 번역어가 없어 라틴어의 ‘adver’, 즉 “알린다, 아림”이란 말을 붙였던 것. 이때부터 광고는 지금까지 100년도 훨씬 넘는 역사를 걸어왔다.

1921년 경성부가 뿌린 광고지는 전 국민의 고충이 무엇이었나를 알게 해준다. “파리를 죽이고 애기를 살구자”는 카피가 적힌 광고지는 장티푸스, 콜레라, 이질 등의 전염병이 한참 떠도는 시기를 의미한다. 해방 후 한국인들의 취향은 무엇이었나? 대놓고 “미제와 꼭 같은(미국 원료, 미국 처방으로 제조된)”이란 헤드라인을 달고 나온 럭키치약 광고가 힌트가 된다. 이 밖에도 깔끔한 가사, 단순하고 경쾌한 리듬으로 전 국민에게 알려진 부라보콘 노래, 구봉서 씨가 등장했던 조미료 광고 등이 추억의 산물이란 의미를 뛰어넘어 문화현상을 읽는 키워드를 자칭한다.

행여 “그 시대가 궁금한데 역사책은 읽기 싫다”는 이가 있다면 이 책을 가이드 삼아 옛 시절 광고부터 떠올려 볼 것을 권해본다. 무거움과 가벼움 그 중심에서 산업이자 문화, 역사학적 자료가 되는 광고의 의미들을 제대로 짚어본 책이다.

김청연 기자